

2012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2-12



2012 ISSUE PAPER

## 미래가족시나리오개발과 정책방향


수행과제명 | 가족의 미래와 여성 · 가족정책 전망(II)


과제책임자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미래가족시나리오개발과 정책방향

수행과제명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Ⅱ)

과제책임자  장 해 경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41

 e-mail: hkchang@kwidimail.re.kr

### 요약

2030년 한국 가족의 미래모습을 최초로 예측하여 돌봄, 불평등, 가족의식 세 축을 중심으로 5종의 미래가족시나리오를 개발함. 5종의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와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최선인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차선으로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인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임.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정비가 필수적임. 최선 혹은 차선의 미래가족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돌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수립이 중요함. 시나리오의 중요한 축인 가족의식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을 말해줌

## 1 배경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2011-2014)의 2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인 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정치, 가족의식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미래가족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시나리오는 각국의 문화, 가치, 경제상황 등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만들어짐. 이미 EU, OECD, 독일, 미국 등은 사회·경제적 위험요소와 관련된 가치들과 주요 이슈(이주의 개방성 등)들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개발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미래사회 대응 가족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현재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가족변동의 과정은 정책설계시 가족의 현재적 변화와 미래의 변화방향을 객관적 예단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판 미래가족시나리오 개발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중장기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2 조사 및 분석결과

- 주요 가족환경 영역별(인구, 정치, 경제·노동, 과학기술) 가족변동 핵심요인 도출 및 미래가족 변화 예측
- 영역별 미래가족의 변화양상과 가족미래에 미칠 영향 가설 도출: 인구 16개, 정치15개, 경제·노동 47개, 과학기술 41개 등 총 119개 가설 도출함
- 총 4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영역별 미래 가족의 변동 핵심 요인도출(1·2차 조사) 및 핵심요인별 미래가족변화 가설

## 검증(3·4차 조사) 실시함

### ■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개발

- 3, 4차 델파이조사 결과 채택된 미래가족변화 가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돌봄(Care), 불평등(Inequality), 가족가치(Family Value) 총 3개의 시나리오 축 설정
- 세가지 축에서 ‘돌봄(Care)’은 가족의 돌봄부담 증가 및 감소로, ‘불평등(Inequality)’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또는 감소로, ‘가족가치(Family Value)’는 개인중심가치 강화와 약화 방향으로 해서 각 두가지 값을 세 가지 축과 조합하여 최종 5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함

번호	시나리오 명명	불평등	가족돌봄 부담	개인중심 가치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1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증가	증가 (가족돌봄)	강화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1 (Feasible1)
시나리오2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증가	감소 (시장돌봄)	강화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2 (Feasible2)
시나리오3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감소	감소 (국가돌봄)	강화	최선의 시나리오 (Best)
시나리오4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감소	감소 (국가돌봄)	약화	차선의 시나리오 (2nd Best)
시나리오5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증가	증가 (가족돌봄)	약화	최악의 시나리오 (Worst)

### ■ 시나리오별 내러티브 작성

-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내러티브는 시나리오 전문작가의 도움으로 작성됨. 내러티브 개발을 위해서 모델가족을 선정하였는데, 다양한

계층과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4인가족(소득하위), 3인가족(소득상위), 2인가족(노인부부, 한부모가족), 1인가족(독거노인, 독신여성)으로 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여섯 가족이 경험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냄

#### 1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Feasible1)

- 이 시나리오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가족돌봄부담도 증가하며, 개인 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임.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국가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가족돌봄 높은 부담과 가치관의 개인화 간의 경합 또는 충돌이 예상됨.

**표 1** 시나리오1: 경제적 불평등 증가-가족돌봄부담 증가-개인중심가치 강화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큼</li> <li>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시장에 돌봄서비스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직접 아동을 돌봐야 함</li> <li>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주로 노부모를 간병하고 수발해야 함</li> </ul>
가족 의식	개인중심 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 ●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내러티브

2030년 서울. 김미래 씨의 가족은 남편 장대한 씨, 첫째 장김초롱과 둘째 장김지우로 구성된 평범한 4인 가족이다.

남편 대한(42, 남) 씨는 (주) 한국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작년 새롭게 출시된 ‘그린카’가 주력 판매 분야이다. ‘그린카’는 100% 태양열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료비 절감의 장점이 있는 반면, 차량 자체의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에 수요층의 폭이 매우 좁다. 이 같은 ‘그린카’의 판매 실적부진으로 인해 대한 씨의 월급도 크게 삭감되었다. 가게 사정이 점차로 악화되자 미래(39, 여) 씨는 자택 인근 익스프레스 마트의 쇼핑도우미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불안정과 턱없이 낮은 임금 탓에 불만이 많아 미래 씨는 최근 이직을 고려중이다.

반면 대한 씨의 동생 장민국 씨는 고객 연봉을 받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연구원이다. 풍요로운 생활 덕에 아내 하인경 씨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생계를 위한 노동 없이 전적으로 자녀 양육에만 매진하고 있어 미래 씨의 부러움을 산다. 결혼과 함께 사직했던 인경 씨는 최근 못 다한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이 커져 관련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올해 첫째 딸 초롱(8, 여)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미래 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격일에 한 번, 등교 수업과 이-러닝용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대체수업을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롱이 이-러닝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까닭에, 미래 씨는 초롱의 수업일정에 맞춰 파트타임을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일반 사설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지우(6, 남) 는 오후 2시쯤 하원 하는데 귀가 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최근 맞벌이 부모를 위한 가사-학습도우미 로봇이 출시되었지만 미래 씨는 여러 가지 상황을 숙려한 끝에 결국 시도 박선주 씨에게 육아를 부탁한다. 이 가사-학습도우미 로봇 가격은 매우 고가일 뿐더러, 아이들의 양육이 비단 학습보조만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 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 때 미래 씨를 비롯한 서민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양여분(67, 여)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구식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이다. 오랫동안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해온 여분 씨는 최근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지능형 근력지원 장치 삽입수술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 수술은 국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자인 두 딸, 미래 씨와 여동생 영래(35, 여) 씨가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수술 이후의 재활 보조, 수발 등의 각종 부양부담 역시 오롯이 두 딸의 몫이다. 양육과 생계문제로 벅찬 미래 씨는 미혼인 영래 씨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분담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PC업체 기획개발부의 과장인 영래 씨는 최근 두루마리처럼 접는 태블릿 PC의 출시를 앞두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영래 씨는 가족형성을 핑계로 모친의 부양을 떠맡기는 듯한 미래 씨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결국 둘 사이엔 잦은 갈등이 생긴다.

심신이 약해진 여분 씨는 서른을 훌쩍 넘긴 둘째 딸이 서둘러 결혼하길 바라지만, 영래 씨는 결혼보단 커리어 쌓기에 더 큰 매력을 느껴 아직은 독신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언니 미래 씨나, 이혼 후 육아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부하직원 최소영 (31, 여) 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커져만 간다. 특히나 소영 씨는 절친한 직속상사인 영래 씨에게 곧잘 한 부모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 소규모 유아놀이방에 다니는 어린 딸 민지(4, 여)는 아직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소영 씨는 다음 달 있을 승진시험에 욕심이 생겨 고민이 많다. 현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인 소영 씨는, 여자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 번듯이 아이까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절감한다.

## ②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Feasible2)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지만 시장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부분적으로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임.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돌봄은 국가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시장화되어 계층별 서비스격차가 크게 차이이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불평등의 증가 측면이 부각됨.

**표 2** 시나리오2: 경제적 불평등 증가-가족돌봄부담 감소(상품화된 서비스)-개인중심가치 강화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큼</li> <li>• 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 및 가격대의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이 형성됨</li> <li>•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며, 따라서 제공 받는 돌봄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서비스는 시장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제공됨</li> <li>•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존재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li> </ul>

요소		설명	예시
가족 의식	개인 중심 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 ●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내러티브

장대한 씨는 (주) 한국자동차에서 태양열 동력카인 ‘그린카’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워낙 고가인 ‘그린카’의 수요층 한계로 인해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자 대한 씨는 밤낮 주말 할 것 없이 영업에 매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은 최하위에 머물며 월급은 나날이 삭감되고 있다. 아내 김미래 씨는 익스프레스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이머인데, 불안정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의 처우 불만이 많아 이직을 고려중이다. 부부가 근무하는 시간동안 첫째 딸 초롱은 초등학교 오전 정규수업 후 수강료가 저렴한 개인 보습학원에서 오후 4시까지 보충교육을 받는다. 둘째 지우는 주거를 겸한 소규모 민간 놀이방에서 온종일을 보낸다. 미래 씨는 퇴근과 함께 또다시 가사와 육아 노동에 내몰리는 까닭에, 개인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어 이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미래 씨는 조만간 남편과 함께 가사분담 문제를 심도 있게 상의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대한 씨의 동생 장민국(36, 남) 씨는 현재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연구소에서 최고 연봉 대우를 받는 엘리트연구원이다. 얼마 전 민국 씨가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신소재가 글로벌 어패럴회사와 제휴해 실용화가 진행되며 그는 연봉을 몇 배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벌어들였다. 최근 민국 씨와 아내 하인경(37, 여) 씨, 아들 장하범(5, 남), 세 가족은 120층 초고층 아파트(U-city)로 이사했다. 한 해 관리비만도 엄청난 이곳은 집안 내 모든 시설이 스마트화 되어 있어 간편한 버튼 터치 한 번으로 가사업무가 지원되는 최신식 시스템이다. 아들 범은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고급 외국계 유치원을 다니는데 하원 후에는 아파트 입주민 아동을 위한 플레이 센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시간을 보낸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인 인경 씨는 가사와 양육부담에서 거의 해방되며 자기계발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미래 씨의 시부모는 현재 남해에 대규모로 조성된 최고급 실버타운에 거주 중이다. 몇 해 전 인공신장 수술을 받은 시부 장태평(75, 남) 씨는 깨끗한 이곳의 천혜환경과 선진화 된 요양서비스로 인해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남편과 함께 안락한 노년생활을 즐기고 있는 시모 박선주(70, 여) 씨는 서울에 있는 장남 대한 씨 내외와 잦은 연락을 한다. 장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선주 씨는 최소 한 달에 한 두 번은 대한 씨 가족이 남해에 내려와 주길 바란다. 5년 전 서울과 남해를 잇는 자기부상열차가 완공되어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과도한 업무로



지쳐 있는 미래 씨 내외는 개인 휴식시간이 절실하여 시부모의 요구가 무척 부담스럽다. 그에 반해 실버타운 입주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차남 민국 씨 내외는 최신 홀로그램 메시지를 구입해 정기적인 영상 통화로 직접 방문을 대체하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래 씨의 모친 양여분 씨는 독거노인 가구로, 최근 퇴행성관절염 수술인 지능형 근력지원 장치 삽입수술을 받고 사립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했다. 낡은 구교사를 개조해 설립된 이곳은 구형 시스템과 비전문적인 인력배치로 서비스가 형편없지만, 보호자인 두 딸 미래 씨와 영래 씨의 경제적 사정 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분 씨는 현재 노환이 심각하나 돈도, 부양가족도 없어 고투중인 무자녀 친구 내외를 떠올리며, 그래도 비교적 나은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려 한다.

PC업체 기획개발부 과장인 영래 씨는 두루마리 태블릿PC 출시를 앞두고 부하직원 최소영 씨 외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모두들 지쳐있지만, 그보다 소영 씨는 양육과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이혼 후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소영 씨는 최근 어린 딸 민지를 안전하고 시설 좋은 사설 육아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영래 씨는 소영 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일정 편의를 봐주려하나 업무에 대한 소영 씨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일과 양육을 무척이나 힘겹게 병행하는 소영 씨를 보며, 영래 씨는 결혼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 ③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Best)

-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임.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간의 부담이 적고, 이로 인해 오히려 친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 3** 시나리오3: 경제적 불평등 감소-가족돌봄부담 감소-개인중심가치 강화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가 줄어듦</li> <li>주거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음</li> <li>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완화됨</li> <li>장기저리임대아파트 공급의 확대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li> </ul>
돌봄 방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li>노인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아동, 노인에 대해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지원</li> <li>국가지원 돌봄서비스는 무상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됨</li> </ul>
가족 의식	개인 중심 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내러티브

김미래 씨는 익스프레스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이머이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각종 상여금제도와 휴가제도, 직원할인혜택 등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받고 있어 근무환경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최근 미래 씨는 마트 내 위치한 댄스클럽에서 50% 직원할인혜택을 받고 밸리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해 매일 저녁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남편 장대한 씨는 (주) 한국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태양열 동력차인 ‘그린카’의 판매담당이다. ‘그린카’는 획기적인 연료비 절감에 비해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인 탓에 판매가 저조하다. 하지만 국가 최저기본급 보장제도 덕분에 대한 씨는 2분기 최하위 판매대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 씨는 취미인 주말 등산으로 심신을 다지며 조금씩 해치지 않고 새로운 판매 전략을 열심히 구상 중이다.

미래 씨의 여동생 영래 씨는 PC업체 기획개발부 과장으로 아직 미혼이다. 현재 영래 씨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 별다른 결혼계획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언니 미래 씨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지켜보며 일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매김 했음을 느끼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부하직원 최소영 씨는 이혼 후 어린 딸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가장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최고급 국립 탁아소와 국가 한부모가장 지원금 덕분에 일절의 육아/가계부담 없이 원만한 회사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요즘 영래 씨는 언어소통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 이용, 주말마다 전 세계를 즐겁게 여행하고 있다. 일에만 쫓겨 다니지 않는 진정한 삶의 여유를 추구하고 있는 영래 씨다.

한편 미래 씨의 첫째 딸 초롱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오전 정규수업 후에는 국공립 특기적성개발원에서 최고 수준의 발레와 작문교습을 받는다. 둘째 아들 지우는 사촌동생인 범과 함께 최신식 시립 아동교육센터에서 개인별 맞춤식 이-러닝 학습과 스포츠 활동을 한다. 오후 4시경 초롱과 지우가 시설에서 귀가 시 자녀 손목에 부착된 GPS칩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부모에게 SMS알림을 주기 때문에, 대한 씨 내외는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 이후엔 부부가 순번을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를 체크한다. 2030년 현재 스마트 가전기기가 보급화 되며 전문 영역이 사라지고 가족 일원 모두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미래 씨의 모친 양여분 씨는 오랜 지병인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되자 국가 노인보협공단에서 수술비 대부분을 지원받아 지능형 근력지원 장치 삽입수술을 받았다. 요즘 여분 씨는 국립 노인요양시설에서 재활 중인데, 이곳은 24시간 사람의 시선으로 사용의도를 파악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비접촉 맞춤형 UI가 설치된 최신식 시스템을 자랑한다. 덕분에 보호자의 보조수발은 거의 필요치 않으며 여분 씨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 나날이 쾌차하고 있다.

또한 미래 씨의 시부모인 장태평 씨와 박선주 씨는 서울 외곽의 공립 노인복지요양시설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노인여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축된 이곳은 국립 의료종합센터와 연계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입주민의 건강을 체크해준다. 또한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를 무료로 렌트할 수 있어 태평 씨 내외는 자유롭게 외부 이동을 할 수 있다. 시모 선주 씨는 가족모임을 좋아하지만 각자 개인생활로 다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존중하므로 대한 씨 내외는 부모방문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

#### ④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2nd Best)

- 차선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지만, 개인중심가치는 약화되는 시나리오임.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어느 정도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가사·돌봄역할수행에 대한 기대는 온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임. 이 시나리오는 가족간 불평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내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커질 위험을 가지고 있음.

**표 4** 시나리오4: 경제적 불평등 감소-가족돌봄부담 감소-개인중심가치 약화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li> <li>주거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음</li> <li>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완화됨</li> <li>장기저리임대아파트 공급의 확대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li> </ul>
돌봄 방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li>노인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아동, 노인에 대해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지원</li> <li>국가지원 돌봄서비스는 무상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됨</li> </ul>
가족 의식	개인 중심 가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전체를 위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라면 구성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대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li> <li>사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행사와 개인의 일이 겹칠 경우 가족행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함</li> <li>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ul>

#### ●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내러티브

장대한 씨는 (주) 한국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작년 새롭게 출시된 태양력 동력 차인 ‘그린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차량가격이 워낙 고가인 탓에 판매실적은 부진하나, 대한 씨는 국가 최저기본급 보장제도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내 김미래 씨는 익스프레스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임이다. 지난 2012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거듭 개선되며 비정규직인 미래

씨 역시 각종 상여금제도와 휴가제도, 직원할인혜택 등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받고 있다. 미래 씨는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꽤 만족하고 있으나, 퇴근 후 일절 휴식 없이 가사와 양육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고 있어 상당한 체력적/정신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남편 대한 씨는 영업 일로 바빠 가사와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특히 집안일은 여자의 손이 아му지다고 생각해 미래 씨의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미래 씨 역시 남편 대한 씨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한 씨의 동생 장민국 씨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연구원인데 최근 개발된 신소재가 실용화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내 하인경 씨는 원래 외근이 잦은 부동산 컨설턴트였으나 출산 후 남편의 의견에 따라 직장을 관두면서 현재는 주부로 전업한 상태다.민국 씨 가족의 집은 최신식 아파트인 U-city로, 모든 가사시설이 스마트 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인경 씨는 가사 이외에 민국 씨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매진하느라 개인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며 별다른 여가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경 씨의 불만은 전혀 없으며 남편의 소득이 높은 만큼 아내로서의 역할- 집안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국 씨 역시 가정에 대한 인경 씨의 전적인 헌신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 씨의 첫째 딸 초롱은 올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다. 오전 수업 후 초롱은 학교에 남아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국가 지원정책인 방과 후 개별심화학습을 받는다. 둘째 아들 지우는 사촌동생 범과 함께 최신식 시립 아동교육센터에서 맞춤식 이러닝 학습과 스포츠 활동을 한다. 미래 씨는 담당교사와 상담 시 동서 인경 씨와 시간을 맞춰 함께 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바쁜 와중에도 자녀교육에 관한 각종 고급 정보를 수시로 교환한다.

미래 씨의 시부모는 서울 외곽의 자택에 거주 중이다. 몇 해 전 인공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시부 장태평 씨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 노인연금으로 수술을 받았던 국립 의료종합센터와 자택의 거리가 먼 까닭에, 태평 씨는 헬스 나 노칩을 수술 부위에 삽입하여 무료 화상 의료케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된 태평 씨는 아내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려 들어, 선주 씨는 인근의 훌륭한 공공여가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선주 씨는 자녀들이 수시로 방문해 태평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한다. 대한 씨와 민국 씨 내외는 이러한 부모의 요구에 부담감을 느끼나, 자녀 된 도리라고 생각해 바쁜 시간을 쪼개 틈틈이 시부모를 찾아뵙고 있다.

한편 PC업체 기획개발부 과장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영래 씨는 미래 씨의 여동생으로, 2년 간 만난 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영래 씨는 최근 두루마리 태블릿 PC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된 신입사원 최소영 씨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소영 씨의 경우, 2년 전 협의 이혼으로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 문제가 갑작스레 닥쳐들자 늦깎이로 입사한 케이스다. 오랜 전업주부 생활로 사회 경험이 전무한 소영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숙련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거듭되는 흥흥한 뉴스에 비취, 국립 탁아소에 맡겨놓은 어린 딸에게 행여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일도 내팽겨 치고 달려가 버리기 일쑤다. 영래 씨는 그러한 소영 씨를 보며 내심 저 역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자신이 없고 연인 또한 아내가 내조에만 전념해주길 바라고 있어,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으로 결심을 굳힌다.

### ⑤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Worst)

-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증가하며, 개인중심가치는 약화되는 시나리오임.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가족의 돌봄부담은 크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가족주의 가치도 개인화되지 않은 사회임.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고 계층간, 성별 불평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표 5** 시나리오5: 경제적 불평등 증가-가족돌봄부담 증가-개인중심가치 약화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큼</li> <li>• 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시장에 돌봄서비스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직접 아동을 돌봐야 함</li> <li>•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주로 노부모를 간병하고 수발해야 함</li> </ul>
가족 의식	개인 중심 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전체를 위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라면 구성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대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li> <li>• 사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행사와 개인의 일이 겹칠 경우 가족행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함</li> <li>•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ul>

### ●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내러티브

김미래 씨는 대형 익스프레스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이머이다. 비정규직인 미래 씨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생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사리 불만사항을 건의하지 못한다. 첫째 딸 초롱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미래 씨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됐다. 최근 초등교육은 이-러닝용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택 학습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보호자가 미숙한 자녀의 학습보조를 지원해 줘야 하는 시스템인 까닭에, 미래 씨는 초롱의 수업일정에 맞춰 매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둘째 아들 지우는 인근 무허가 사설 놀이방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 최근 시조카인 범이 외국계 초호화 특기적성개발센터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미래 씨는 지우를 허름한 건물로 등원시킬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 퇴근 후에도 모든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고 있는 미래 씨는 여가생활은 커녕 휴식시간조차 일절 가질 수 없다. 현재 고가에 시판 중인 가사-학습도우미 로봇을 구입할까도 싶지만 악화된 가계 상황을 고려해 결국 그마저도 포기해버리는 미래 씨다.

남편 장대한 씨는 (주) 한국자동차에서 태양열 동력차인 '그린카'를 담당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그린카'는 연료비 절감 면에서 탁월한 반면 차량가격이 워낙에 고가라 늘 판매부진에 허덕인다. 대한 씨는 이번 분기도 팀 내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며 연봉이 대폭 삭감되었다. 당장 이번 달 가족 생계비가 부족한 대한 씨는 스마트 사이버뱅크를 통해 1금융권의 서민생활비 대출을 알아본다. 그러나 지난 번 대출금 이자도 밀려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홀로그램 아바타의 답을 듣고 망연자실한다. 결국 대한 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동생 민국 씨를 찾아가 사정을 터놓기로 한다. 민국 씨는 친환경 소재 개발연구원으로 최근 개발한 신소재가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민국 씨의 아내 인경 씨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적으로 매진하며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대한 씨는 그러나 위압적인 민국 씨의 150층 초호화 아파트(U-city)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만다.

한편 미래 씨의 모친 양여분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구식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을 앓던 여분 씨는 최근 지병악화로 지능형 근력지원 장치 삽입수술을 받아야만 하지만 이는 국가 의료보험이 미적용 되는 수술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인 두 딸, 미래 씨와 여동생 영래 씨는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수술 이후의 재활 보조, 수발 등의 각종 부양부담 역시 두 딸이 짊어져야 한다. 장녀인 미래 씨는 막중한 부양책임을 느껴 파트타임 시간을 대폭 늘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모친 간병에 할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양육과 가사에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남편 대한 씨와 두 자녀의 불만과 원망은 커져만 간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될수록 미래 씨는 체력적/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있지만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해 묵묵히 개인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PC업체 기획개발부 과장인 영래 씨는 얼마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연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상당한 고민에 휩싸였다. 부하직원인 최소영 씨의 경우, 이혼 후 어린 딸 민지의 육아를 전적으로 도맡고 있는데 일과 양육,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사설 놀이방에다 우는 아이를 간신히 떼어놓고 출근하는 소영 씨는 온종일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어 업무에 매진하지 못한다. 또한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엔 놀이방 하원 후 딸의 육아를 부탁할 사람을 찾느라 다른 동료직원에게까지 민폐를 끼친다. 이러한 소영씨의 모습은 결혼생활의 큰 부담으로 다가와, 영래 씨는 청혼에 대한 대답을 자꾸만 보류하게 된다.

#### ■ 시나리오 개발의 의의

- OECD와 EU 등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한 국가들이 제기한 주요 정책이슈는 2030년 한국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치관이 시나리오의 주요 축으로 설정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이슈 또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개발된 시나리오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중장기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3 정책방향 및

#### ■ 사회보장정책의 정비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1 또는 2와 같이 불평등이 강한 사회를 시나리오3과 같이 불평등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정비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커버리지 확대, 보편적 수당의 도입, 공공부조의 확충 등 다차원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 과제로 제안될 수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의 차원에서는 특히 빈곤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될 수 있음

#### ■ 돌봄정책의 재점검과 방향 수립

- 최선 혹은 차선의 미래가족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돌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족돌봄, 노인부양 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일과 가족돌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요구됨



#### ■ 가족관련 현행법과 관련제도 개선 모색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미래 가족 변화의 또 다른 축은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강화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정책 수립 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의 변화요인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 필요함

## 4 기대효과

- 한국판 미래가족시나리오 개발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 기존의 모든 제도와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심층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임.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돌봄의 문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문제 등은 한국의 사회정책, 가족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게 하여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지원정책의 방향설정, 그리고 사회보장, 돌봄, 가족관련 법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할 것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보건복지부, 농림부